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임박

전북도, 앞으로 2개월간 적법화 총력 대응

미완료 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전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총 4133농가 중 완료 또는 진행단계가 3387농가(82%), 축량단계가 329농가(8%), 미 진행단계가 418농가(10%)라고 밝혔다.

추진율(완료 또는 진행단계)은 지난 3월 45.3%에서 5월 74.7%로 급상승했으나, 7월 현재 82%로 추진율의 상승 폭이 둔화됐다.

이는 축량중이거나 미진행농가의 적법화를 위한 진행이 더디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현재 남아있는 축량 및 미진행농가가 747농가로 전체의 18%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은 추진율이 90%이상,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은 추진율이 80%미만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행법상 9월 27일 적법화 이

행기간이 종료되면 지금까지 농가에 지원됐던 모든 혜택이 종료되며 미적법화 축사에 대해 폐업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알렸다.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 직후, 이행강제금 경감종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종료, 착유세척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건폐율 적용 제외 종료, 국유지 매각 완화 적용 종료, 농산보 특례 보증 자금지원 종료 등 농가 지원혜택이 모두 종료되며, 적법화를 하지 않은 농가는 위반사항에 따라 축사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종료 일인 9월 27일을 두달여 앞둔 현재, 추진율을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 7월까지는 축량 및 미 진행단계 농가의 진행단계로의 이행이 급선무라고 밝

히면서, 무허가 축사의 위반유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공유지 등의 토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용도폐지 및 매각 절차 등의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축량 및 미진행단계 농가는 최소 7월까지의 적법화 방향에 대한 입장이 결정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기한내 적법화가 가능함을 알렸다.

아울러 기한이 임박할수록 적법화 미추진 농가의 신정이 불려 이행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법화 추진농가의 조속한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용 농축수산물품국장은 "축산농가의 오랜 과제이며 최대 현안사항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해 우리도 축산농가들이 무허가라는 오명을 벗고 당당히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의 역할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며, 축산농가도 이행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상산고 박삼욱 교장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 당연한 것"

지난 26일 상산고등학교 교정실에서 박삼욱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도 · 완주군 합동 물놀이 안전점검의 날 실시

전북도는 지난 26일 완주군과 함께 고산면 오성교 인근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무더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한 물놀이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전북도, 완주군, 완주소방서, 완주군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총 60여명이 참여한 이번 점검에서는 물놀이 지역 주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 등 시설물

관리상태와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물놀이 안전홍보물을 배포했다.

점검결과 발견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 조치토록 지시하였으며 향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의 지속적인 예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방문객들의 수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말에도 상황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본격적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공무원, 안전관리요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관리체 운영을 통해 물놀이 안전취약지역을 중점관리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 참석한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욕장 등에 비해 하천, 강, 계곡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더 취약하다"며 "안전요원 배치 등 법적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끊임없는 순찰과 계도활동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재해위험지역 정비 전국 최고!

전북도, 행안부 우수사례 공모서 무주군 등 도내 3개 시·군 선정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 심사 결과 전북도내 사업현장이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우수에 무주군 대처1지구가 선정됐고, 입선으로는 군산 군장대교지구, 완주 교동지구 등 총 3개 사업이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27개 사업이 공모에 참여해 12개 사업이 뽑혔다.

전북도는 그동안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민간 전문가 및 자

재난과장으로 구성된 컨설팅반을 구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재해위험해소 효과성, 정비방향의 적절성 등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대처1지구는 무주읍 용포리 도로 비탈사면으로 2014년 10월 24일 붕괴위험 D등급으로 지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6월 준공했다. 이 지역은 서면마을과 차산마을의 주 진입도로에 위치하여 잦은 낙석으로 인해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던 지역으로 시공방법 변경을 통해 2억6천6백만원의 예산절감과 지역주민 222세대 459명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등 예방사업의 효과가 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 군장대교지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억원을 투자하여 월명공원 내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위치한 노후건물 12동을 철거하여 주민을 이주시키고 도시 녹지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군산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완주 교동지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산비탈을 정비해 교동마을을 30세대 주민의 위험 해소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전북도는 지난 2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북연구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4차 전북도 지역에너지계획은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의 효율적 달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최적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안전

적이고 친환경적인 공급 등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된다.

전북도는 2017년, 정부의 '에너지전환' 공식 수용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소비구조 혁신 중심 패러다임 전환, 깨끗·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저장·분권 활성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행정·전문가 중심 계획 수립 관행에서 탈피, 시민·주민이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적·실질적 참여

가 보장되는 협치 모델을 부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동일한 5년 주기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발전 및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계획을 수립,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안정공급·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전라북도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는 에너지 관련 특화시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농기계 임대사업평가 4개소 선정 '전국 최다'

인센티브 사업비 20억원 확보로 노후 임대장비 현대화

농생명 특화도시를 표방하는 전북도가 2019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남원시, 임실군, 장수군, 고창군 4개 시군이 10위권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2개 시군, 469개 임대사업소 전체에 대한 평가로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임대사업 실적, 수요자 만족도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도는 10위권 4개소를 비롯해 50위권 내에 9개 시군이 포함됨으로써 '농생명 특화도시',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를 표방하는 도의 위상

에 걸맞은 성과를 올리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평가를 통해 시군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으로 국비 10억원을 포함,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20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개설하는 경우 개소 당 10억원의 기준 사업비에 최대 3억원의 국비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총사업비 16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평가에서 인력관리 부문 모범 사례로 선정된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경우 직원 안전교육과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노력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물품국장은 "휴일도 없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 일선 시군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더욱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